

지역 소식통

고창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 고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에 호소수 전담창구 설치,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중소기업 지원 등 16개 항목의 실적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고창군은 ▲활발한 기업유치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우수시책 발굴 및 이행실적 ▲기업에 호소수 전담창구 설치 ▲기관장 관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자 보전 및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기업에 호소수 전담창구 운영 ▲기업전문교육 ▲기업간담회 추진 ▲높고창 온라인쇼핑몰 운영 ▲노후농공단지 시설장비 ▲고창군 로컬잡센터 운영 등을 추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 수상생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기초 영농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 기초 영농 기술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 유도와 영농 정착을 위한 취지다.

교육 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다.

신청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12회에 걸쳐 50여 시간 동안 진행된다.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읍농업 현황 및 귀농 지원정책 ▲작목별 재배 기술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회계 ▲법률 지식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 낳고 싶은 정읍 만들기'

정읍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등 지원시책 확대 추진

아이 낳고 싶은 정읍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출산과 양육자원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기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을 인상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예비 신부와 결혼 1년 이내 예비맘에게 풍진과 B형간염과 간·신장 기능 검사, 고지혈증, 당뇨 등 8종의 혈액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건강한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를 지원하며,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사업 신청과 이용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7회로 지난해 대비 각 2회씩 추가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임신과 출산, 육아, 모유 수유 등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 공예 교실, 임산부 건강 교실, 야기사랑 엄마사랑 육아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등을 연중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내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전액 지원

부안형 무상교육 복지 실현

부안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석식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7개교 1,114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석식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연간 약 4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한 학생

당 연간 최대 70만원의 석식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사업은 민선7기 권익현 부안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50% 지원비율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비율을 확대(2019년 50% → 2020년 70% → 2021년 85% → 2022년 100%)하여 올해부터는 전액지원으로 부안형 무상교육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지원으

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제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2020년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푸드플랜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가 17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미란 의원(대표위원)과 김수영, 김영환, 염윤철, 박호인 등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



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미란 대표위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운영의 적법성, 예산의 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72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결의'

정읍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72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17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시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촉구 결의문'을 통하여 정읍시의회는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을 강력히 지지하고 깊은 연대를 표명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군병력을 철수 할 것과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도형·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약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행안면 '생생소통 대화'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는 17일 예술회관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관·단체장 및 행안면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행안면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생생소통대화는 부안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행안면새마을지도자회, 청교마을 허종남 이장, 새마을꽃시장 송수용 대표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민정 주요업무 보고 및 군정 비전공유, 생생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2022년 부안군의 군정목표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면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제네마을 응벽 설치공사 등 주민행복사업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끝으로 생생소통 대화를 마무리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